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광포도위사격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있다는 전략군사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화성포병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오늘 대련합부대에 와서 화성포병들의 전투준비태세와 사기충전한 모습을 직접 보니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의 군사적대결망동은 계층으로 제국에 윤가미를 거는셈이 되고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대책없는 개기를 부리며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는 미국에 한마디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특실관계를 잘 따져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반도지역에서 정세를 완화시키고 위협한 군사적총돌을 막자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핵전략장비들을 끌어다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오만무제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견어치우고 우리를 더이상 견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주변에서 위협천만만 망동을 계속 무리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것이라고, 세계면전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의 무모함이 선을 넘어 제국한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놈들의 슬픔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총폐한 역사적순간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천에 돌입할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군사강습소, 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교육에서 주제를 철저히 세우고 군사감습의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여 대련합부대안의 전체 화성포병들을 현대군사과학기술과 적들의 변화된 전쟁수행방식, 그에 대처한 우리 식의 전법에 완전무결하게 정통한 두뇌전의 능수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란도르케트들이 현대화, 첨단화되는데 맞게 전략군 지휘성원들과 기술인군들을 재교육하는 체계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구분대식당을 비롯한 대련합부대 지휘부인의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부대들을 돌아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후방사업이자 싸움준비라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이 전사들을 친형제,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잘 돌봐주어야 하며 군인들에게 보다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힘껏 노력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에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전략군의 작전임무와 특성, 화성포병들의 지향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니 공연활동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핵무장력의 중추력량으로서 반미대결전과 조국통일대전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할 화성포병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상과 신념이 무결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련합부대 당위원회에서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전략적기도를 실현하는데서 전략군이 맡고있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전략군에서는 핵무력에 대한 최고사명관의 유일적 명도체계, 유일적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주제적인 로켓트전략법을 더욱 완성해나 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전만년미래를 억적으로 담보하는 믿음직한 보검인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크나큰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전체 전략군 장병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싸움준비완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 장병들은 김정은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시면 무적의 발사태마다에 성스러운 붉은 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펼칠 휘날리며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작전지대와 미국본토의 타격대상물들을 섬멸적인 초강력타격으로 초토화하여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